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감염병 월간 소식 Vol.2(6월호)

결핵 치료지연 문제와 학교에서의 주의사항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기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이지만 더 이상 무서운 감염병이 아닌, 조심하면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에는 기침을 하더라도 감기려니 하거나, 열이 나도 해열제를 먹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지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침을 하거나 몸살이 생기면, 누군가에서 피해를 줄까 염려되어 스스로 조심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를 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까지 만해도 결핵은 국내에서 가장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이었습니다. 아직도 결핵은 잊혀진 질병이 아니고, 가족 간의 감염이나 학교와 직장 등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위생이 좋아지면서 결핵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침, 몸살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검사만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결핵환자의 진단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고된 자료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가 이전보다 유증상 도말양성결핵(균이 나와서 주변 전파력이 높은 질병상태)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말양성결핵의 경우 증상이 발생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되기까지 약 200명의 밀접접촉자가 생기고, 이들 중에는 약 30%의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이 무서운 건 이렇게 감염된 환자의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 상태로 있다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고,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감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단 한 명의 도말양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우 감염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외에도 약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코로나19 검사뿐만 아니라 흉부X선 검사를 통해 활동성 결핵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 친구나 동료가 있는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촉자 조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고, 감염된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사전에 시행하여 주변에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 결핵퇴치야 말로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결핵의 조기검진과 잠복결핵감염 치료입니다. 결핵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침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2주 이상 기침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동료나 가족 중에 활동성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접촉자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 국민의 협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핵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